

# 현대차 팰리세이드, 북미시장 하이브리드 기술력 검증

‘북미 올해의 차’ 유틸리티 부문 선정  
통산 9번째 수상… 공간성 등 인정  
‘21세기 가족용 차량 기준 제시’ 평가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시장 최대 격전지 중 하나인 북미 시장에서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14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 헨팅턴 플레이스에서 열린 2026 북미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팰리세이드가 유틸리티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통산 9번째 수상이다. 앞서 ▲현대차 제네시스(2009) ▲현대차 아반떼(2012) ▲제네시스 G70(2019) ▲현대차 코나(2019) ▲기아 텔루라이드(2020) ▲현대차 아반떼(2021) ▲기아 V6(2023) ▲기아 EV9(2024) 등이 수상한 바 있다.



현대차 팰리세이드.

팰리세이드는 루시드 그래비티, 뉴산 리프 등과 경쟁에서 승리했다.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 넉넉한 공간성 등 북미 시장이 선호하는 상품성을 인정받았다는 평이다.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두 개의 모터가 내장된 신규 변속기에 다양한 엔진

라인업을 조합할 수 있어 차급과 차량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성능과 연비를 제공한다.

제프 길버트 NACTOY 심사위원장은 “팰리세이드는 21세기 가족용 차량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델”이라며 “넓은 실내 공간과 운전의 재미, 다양한 기술

까지 두루 갖춘 점이 인상적”이라고 밝혔다.

NACTOY는 1994년 설립 후 매년 최고의 차를 선정하고 있다. 승용, 트럭, 유틸리티 부문에서 올해의 차량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미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분야 전문지, 신문, 방송에 종사하는 전문 기자 50명으로 구성된다.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이사 사장은 “팰리세이드는 아름다운 디자인, 첨단 기술, 뛰어난 안전성, 그리고 가족을 위한 가치 등 현대차가 고객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모든 요소를 담은 모델”이라며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올해 후륜 구동 방식의 차세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한 제네시스 주요 모델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며 하이브리드 라인업을 럭셔리 브랜드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대한·아시아나항공, 임직원 가족 안전체험

지진·화재 발생 대처요령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법 배워

대한항공은 임직원과 가족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과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행사는 지난 14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자녀 10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올해 안전체험 행사는 통합을 앞둔 아시아나항공과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오는 21일과 27일에도 같은 형식으로 두 차례 더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교통안전 ▲학생 안전 ▲재난 안전 ▲응급처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지진과 화재 발생 때 대처요령을 직접 익히고 심폐소생술 등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법을 배웠다.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안전체험관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안전체험’ 행사 참가자들이 응급처치 교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있다.

/대한항공

용 중 사고가 났을 때 비상 탈출하는 방법도 실습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임직원과 자녀들이 함께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재난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임직원 대상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 창립 30주년 기념식 행사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한유원)이 창립 30주년을 맞아 중소벤처·소상공인 판로 지원 강회를 다짐했다.

한유원은 15일 오전 서울 목동 사옥에서 창립기념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유원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된 중소벤처, 소상공인 판로지원 전문기관이다. 설립 당시 ‘중소기업유통센터’였던 기관명은 기관의 역할과 사업 등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 2024년 11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으로 바뀌었다.

현재 한유원은 대국민 소비촉진 행사

동행축제와 함께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태식 대표(사진)는 기념식 기념사에서 “창립 30주년을 맞는 2026년은 이제 다가올 미래 30주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를 위해 서른 살 한유원은 청년 정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해야 한다”면서 “우리 고객인 중소벤처·소상공인의 마케팅, 판로지원을 통한 성장 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칭찬받고 일 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중심으로 주거환경 개선, 복지시설 보수, 긴급 지원 등 지역 이웃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KCC는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올해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KCC 관계자는 “기부금 기탁과 함께 KCC의 고성능 창호, 친환경 폴리에스터 등 건축자재를 활용한 업(業) 연계형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승호 기자

## KCC, 주거환경 개선 등에 성금 3억 기부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 분할 기탁

KCC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이웃 사랑 성금 3억원을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 캠페인에 동참했다.

15일 KCC에 따르면 이번 기부금은 전국 주요 사업장이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에 분할 기탁했다. 기부 혜택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탁한 성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을



GS파워, 공정안전관리 고용부 장관관

GS파워는 14일 중앙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고용노동행정 유공 표창 전수식’에서 공정 안전관리(PSM) 안전문화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돼 고용노동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윤태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왼쪽)과 김성민 GS파워 김성민 부천발전부문장 상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GS파워



한전KPS, 광주공고 기술실습 현장 견학

전력설비 정비 전문회사인 한전KPS는 지난 13일 전남 나주시 인재개발원에서 광주공업고등학교 예비 신입생 40여 명을 초청해 기술 실습 현장 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전기 및 AI반도체 분야로의 진학을 희망하는 예비 고교생들이 참여했다. /한전KPS



한솔홈데코, 드라마 세트 폐목재 재활용

한솔홈데코는 스튜디오드래곤과 서울 상암동 스튜디오드래곤 본사에서 ‘드라마 세트 폐목재 재자원화 및 친환경 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솔홈데코 양병갑 지원혁신부문장(오른쪽)이 스튜디오드래곤 이해미 사업지원실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솔홈데코



케이뱅크, UAE 디지털자산 송금 협약

케이뱅크는 아랍에미리트(UAE) 디지털자산 전문기업 ‘체인저(Changer.ae limited)’, 국내 블록체인 기업 ‘비피엠지(BPMG)’와 ‘한·UAE 디지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송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왼쪽부터) 최우형 케이뱅크 은행장과 왕하오(Wang Hao) 제이자부대표, 문범영 비피엠지 개발실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케이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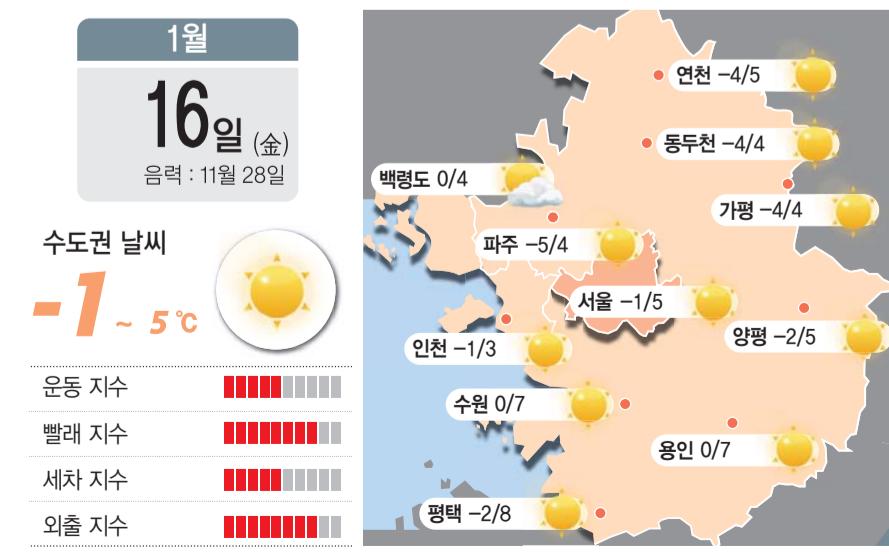
우리은행,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우리은행은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와 ‘상용AI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연수 우리은행 기업그룹장(오른쪽 세번째부터), 어윤호 한국상용인공지능소프트웨어협회 회장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 인사

◆ 우리카드 ◆신규 임원스T본부 상무 김광혁  
◆ iM증권 ◆신규 보임스투자심사실장 이기열  
◆ 국토교통부 ◆국장급 전보 △건설정책국장 김석기

### 오늘의 날씨



## 동서발전, ‘7000원 기부릴레이’ 동참

### 울산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 힘보태

한국동서발전이 울산지역 나눔 확산을 위한 ‘7000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며 지역사회 상생에 힘을 보탰다.

동서발전은 지난 14일 오후 울산본사 사옥에서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가 주진하는 ‘7000원 기부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울산 시민 110만 명이 1인당 7000원

을 기부해 ‘사랑의 온도탑’ 목표액인 72억 5000만 원을 달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지역 참여형 나눔 활동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